

시민기자 제도 도입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병철·최영*

(사이버외국어대 언론홍보학과 교수·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인터넷 신문이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 저널리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그렇지 않은 인터넷 신문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등 3개 모델로 유형화한 뒤 각각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시민 저널리즘 척도를 사용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보다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평균 시민 저널리즘 지수는 <오마이뉴스> 2.55, <시민의신문> 2.47, <네티니언> 1.59 등으로 세 신문 모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시민 기자 제도를 도입한 인터넷 신문이 그렇지 않은 신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또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신문의 일상적인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키워드: 인터넷 신문, 시민 저널리즘, 시민기자 제도

* abebckim@hanmail.net·ychoi21@hanmail.net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터넷 신문은 온라인 저널리즘 혹은 인터넷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 현상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전통적 저널리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최근 미국 언론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¹⁾ 혹은 공공 저널리즘의 실현 가능성이다. 특히 한국의 많은 인터넷 신문은 이른바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이 직접 뉴스 생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뉴스를 시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주인인 시민이 언론의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존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가운데 자발적으로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기자들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 의한 아젠다 형성은 물론 시민의 자발적 토론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바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민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신문의 등장은 지금까지 기존 매스 미디어의 전문적인 직업

-
- 1)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 혹은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은 둘 다 모두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공공 저널리즘, 공공서비스 저널리즘, 공동체 저널리즘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공공 저널리즘 운동의 창시자로 불리는 로젠(Rosen)과 메리트(Merritt)는 공공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고 포우이(Fouhy)는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로젠은 공공 저널리즘은 시민들에게 사회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말한다. 체이퍼(Chaffe)와 맥드비트(McDevitt)는 공공 저널리즘은 뉴스 제작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에 시민 저널리즘은 그러한 뉴스 제작으로 인해 얻어지는 변화된 시민들의 공공생활을 염두에 둔 광의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인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니언> 등 국내 인터넷 신문들이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이 직접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시각에서 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기자들에 의해 사회적 아젠다가 형성돼온 전통적 저널리즘과는 달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은 요컨대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뉴스 소비자가 이제는 뉴스 생산자로 변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기반한다. 즉 뉴스 보도 과정에 주로 정부 관료나 전문가 등 엘리트의 입장을 반영해온 기존의 전통적 저널리즘과는 달리 일반 시민의 입장 혹은 견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데 있다.

198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시민 저널리즘은 현재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 단계에서 기존의 시민 저널리즘 실험들에 대한 학계의 평가 작업을 통해 학문적인 연구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시민 저널리즘 실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환경 하에서의 시민 저널리즘 구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일상적인 실천은 아직까지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cMillan, Guppy, Kunz & Reis, 1998; Massey, 1998; Blazier & Lemert, 2000). 미국의 주요 온라인 시민 저널리즘 신문의 일상적인 실천 정도 역시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온라인 신문에서의 시민 저널리즘 구현은 아직 일상화된 작업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터넷 신문이 도입하고 있는 시민기자 제도의 활성화 정도와 IT 강국으로서의 제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인터넷 신문의 일상적인 시민 저널리즘 구현 가능성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적 가능성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실증적인 분석과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인터넷 신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터넷 신문 이용자에 대한 조사나 인터넷 신문의 기술적 특성 혹은 인터넷 신문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시민 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의 인터넷 신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기존 종이 신문이 발행하고 있는 인쇄신문 종속형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인터넷 신문 연구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가령 <동아닷컴>이나 <디지털조선> <조인스닷컴>과 같이 기존 인쇄신문이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은 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신문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쇄신문의 연장 즉 기존의 제도권 인쇄신문을 온라인으로 연장한 기존 언론의 전자적 확장 내지 기존 언론의 매체라고 할 수 있다(박선희, 2001). 따라서 기존 인쇄신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들 인터넷 신문은 기술적으로 기존 인쇄신문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뉴스 생산과정을 거친 기사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그대로 옮겨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저널리즘과 차별화되는 인터넷 신문의 고유한 저널리즘적인 특징이나 시민 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과 같이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출발한 종합 일간지 형태의 인터넷 전용 신문을 대상으로 시민 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핵심 요소 및 모델을 이론적인 틀 안에서 정의한 뒤 한국의 종합 일간지 형태의 인터넷 전용 신문이 제공하고 있는 기사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인터넷 신문이 갖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내 인터넷 신문이 제공하고 있는 기사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이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시민 저널리즘 모델

어데이(Aday, 1999)는 기존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 실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을 동반자 모델(Prominent Partnership Model), 권력이양 모델(Enhanced Empowerment Model), 정보제공자 모델(Integrated Information Provider Model) 등 3개 모델로 유형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번째 유형인 동반자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과는 달리 기사에 1인칭 혹은 2인칭 화법을 사용해 언론을 일반 시민과 동일한 위치에 두면서 지면의 많은 양을 할애해 거의 전적으로 시민 중심적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야심적인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이러한 동반자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페이지에 걸쳐 많은 양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도표나 컬러를 이용한 역동적인 그래픽, 사진, 로고, 배너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동원해 독자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모델과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인 권력이양 모델은 정부 관료보다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는 시민 중심적 보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시민의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사에 3인칭 화법을 사용해 언론과 시민 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자 모델과 차별화된다. 또 동반자 모델이 최고 수준의 시각적 요소를 동원하는 반면 권력이양 모델은 그보다 아래 단계인 중간 수준의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권력이양 모델의 경우 동반자 모델처럼 일부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사가 한 면 혹은 펼쳐진 양면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동반자 모델과 차별화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 정보제공자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전히 정부 관료 위주의 보도를 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답습하고 있는 최하위 단계

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정보 제공자 모델의 경우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위해 할애된 지면이 동반자 모델이나 권력이양 모델에 비해 적을 뿐더러 관련 기사도 기존의 다른 부분과 통합돼 있어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차이가 있다면 시민 저널리즘 이념을 보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대해 종종 박스 형태의 간단한 개요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래픽이나 사진 등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의 활용에 있어서도 세 가지 모델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친다.

커파이어스(Kurpius, 2000)는 어데이와 유사하게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탐색적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 모델을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준으로 통합(integrated) 모델, 특별 프로젝트(special projects) 모델, 퍼블리시티(publicity) 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 모델인 통합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을 일상적인 보도 과정에 완전 통합시킴으로써 정기적인 편집회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모델은 수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국은 극히 드물다. 두번째 모델인 특별 프로젝트 모델은 프로젝트별로 시민 저널리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통합 모델과 차별화된다. 특별 프로젝트 모델은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 혹은 1년 가까이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도 있어 방송국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러한 특별 프로젝트 모델은 별도의 인원을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 팀에 배정해 강도 높게 시민 저널리즘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특정 주제에 한정돼 있고 제한된 인원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세번째 모델인 퍼블리시티 모델은 마케팅 혹은 홍보의 방편으로 수용자 혹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민 저널리즘을 이용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다. 퍼블리시티 모델은 일선 기자들보다는 고위 간부층에서 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종종 시청자의 저속한 욕망에 영합하기도 한다. 또 모종의 타운 홀 미팅을 갖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 시민의 견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케팅 혹은 홍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주로 홍보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퍼블리시티 모델은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시민 저널리즘 비판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램버스(Lambeth, 1995)는 어데이나 커퍼이어스와의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언론 매체가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 양식은 시민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시민 혹은 공중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두번째 양식은 공공의 문제 및 그 해결책에 관한 지역 사회의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세번째 양식은 첫번째 양식과 두번째 양식을 포괄하면서 공공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언론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패리시(Parisi, 1998)는 램버스의 3가지 모델 대신 시민 저널리즘(civic journalism)과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패리시는 우선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 지역 사회로 하여금 뉴스 아젠다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 생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것을 추구하되 이를 지역사회의 자원에 한정하는 저널리즘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공공 저널리즘은 시민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되 지역 사회의 자원을 초월해 보다 큰 규모의 공공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핵심 요소

시민 저널리즘은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족한 데다 시민 저널리즘 자체가 언론사의 경영적 측면과 언론 운동적 측면, 그리고 공중과 언론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 등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개념과 성격을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다. 또 시민 저널리즘이 실제로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켰다거나 독자의 수를 늘렸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시민 저널리즘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비판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등 지금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시민 저널리즘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시민 저널리즘의 개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Merritt, 1997).

시민 저널리즘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과 관련해 채리티(Charity, 1995)는 시민 저널리즘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뉴스에 정부 관료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취재원으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메리트(Merritt, 1995)는 독자나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에게 어떤 쟁점에 대해 오직 양 극단의 두 가지 견해만을 제시하는 기존의 갈등 모델 대신 새로운 방식의 뉴스 전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의 토론과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 한편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양자택일 방식을 지양하고 양자 사이의 다양한 절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보도 방식을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메리트는 기사가 의도적으로 불거리나 구경거리 식의 보도 방식을 최소화하고 단순히 예 혹은 아니오 식의 양자택일 대신 그 문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핵심 가치(core value)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극단 사이의 절충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면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토론 혹은 숙의를 통해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메리트는 또 기존의 전통적인 보도 방식과는 달리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보도 방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성공사례(success stories)나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모임에 관한 안내나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동원 정보(mobilizing information) 등의 요소를 기사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 방법은 이밖에도 취재 보도 방식과 시민 참여 방식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집약된다. 즉 일반 시민을 뉴스원으로 인용해 기사에 시민의 견해 및 입장 반영하기, 통신 기사나 외부 기사가 아닌 내부 기자에 의한 기사 쓰기, 도덕이나 가치체계 등 기사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사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른바 핵심가치의 내재화, 양자택일 방식의 갈등기사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및 해결책 제시, 공공포럼이나 타운홀 미팅, 포커스 그룹, 여론조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들 수 있다(최영, 2002).

<표 1>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변인 사용의 예

	Coleman (2000)	Corrigan (1999)	Fec (1999)	Lambert (1998)	Massey (1998)	Reide (1999)	Selber (2001)
일반 시민을 뉴스원으로 인용	○	○	○	○	○	○	○
내부 기자에 의한 기사 작성			○			○	○
철충 가능한 공통 기반 모색	○		○	○			○
시민 참여를 위한 동원 정보			○				○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	○	○	○		○	○
양자택일의 갈등 방식 지양	○	○		○			
공공 포럼 활용	○	○					
포커스 그룹 활용	○	○					
여론 조사 활용		○					

* 출처: 「온라인 신문에서의 시민 저널리즘 가능성 연구: 일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최영, 2002, 『한국언론학보』, 제46권 6호, 40쪽.

이와 같은 시민 저널리즘적 요소들은 대개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증적 검증에 이용됐으며 비슷한 성향끼리 범주화를 시키거나 하나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경우도 있다. 가령 매시(Massey, 1998)의 경우는 일반 시민이 얼마나 뉴스 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뉴스원, 인용의 정도, 기사 내에서의 위치 등을 이용해 하나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피(Fec,

1999)의 경우에는 민주화(democratizing), 실천을 위한 권유 혹은 동기 부여(mobilizing), 논의에 있어서 절충이 가능한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solutions) 등 4가지 항목으로 범주화시켜 분석했다. 시민 저널리즘적 요소들은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증적 검증에 이용되고 있으나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언론이 공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사회 지배층이나 전문가, 권력가 등과 같은 엘리트 위주의 보도 관행을 보임으로써 주류 목소리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기사 내용에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민 중심적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언론이 공공 생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도할 때 일회적이고 대안 없는 비판 내지 문제 제기 수준의 보도에 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사건 중심의 이벤트식 보도보다는 관련 정보 혹은 배경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슈 중심적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시민기자 제도

(1) 국내 인터넷 신문의 시민기자 제도 도입

국내 인터넷 신문은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금까지 뉴스 소비자 의 위치에 머물러왔던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직접 뉴스 생산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기자는 신문마다 그 명칭이 네티즌 리포터, 생활인 기자, 사이버 기자, 넷포터 등 매우 다양할 뿐더러 아직 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고 또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 정의도 없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신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기자의 위상과 역할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민 기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기사가 채택될 경우 해당 원고에 대해 소정의 고료를 받기도 하지만 특정 언론 매체와의 고용 계약에 의해 전문적인 언론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업기자와는 달리 고정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직업기자와 구별된다. 또 정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언론 매체에 기자 회원으로 가입해 자발적인 언론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특정 언론 매체에 소속되지 않고 인쇄신문 혹은 인터넷 신문의 독자 투고란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반 독자나 원고 청탁을 받아 글을 게재하는 자유 기고가와도 구별된다. 국내 인터넷 신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기자의 활동을 종합해 볼 때 시민기자는 '특정 언론 매체에 고용된 전문적인 직업 기자와는 달리 자신이 직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필명 혹은 실명의 기자 회원으로 가입해 소속 언론 매체를 위해 유료 혹은 무료로 언론 활동을 하는 비직업적 기자'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없애고 일반 시민이 직접 뉴스 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뉴스 보도 과정에 시민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시민 중심적인 보도를 통해 기존 언론에서 소외됐던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기자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평적 구조 즉 신문사가 자체 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수용, 일정한 가공 과정을 거쳐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평적 관계는 적절하게 활용될 경우 시민 저널리즘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윤태진·강내원, 2001). 다시 말해 시민기자 제도는 시민 이슈 발굴을 위한 일종의 시민 생활권 비트 시스템으로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주의 깊게 듣게 만드는 시민 저널리즘 취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수, 2002). 사회 각계 각층에 퍼져 있는 시민기자들의 폭넓은 뉴스 생산력은 사회 곳곳에서 공유가치가 높고 진솔한 이야기를 기사로 이끌어내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인터넷 신문이 도입하고 있는 시민기

자 제도는 아래로부터의 시민 저널리즘 즉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이 언론의 중심에 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민 저널리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장 혹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민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기자들이 주도해온 위로부터의 시민 저널리즘 즉 기자가 언론의 중심에 서서 시민을 계도해온 일종의 계몽주의적 시민 저널리즘이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기존 매스 미디어의 엘리트 중심적인 언론 관행을 지양하고 시민이 언론의 주체가 되는 시민 중심적인 보도를 주창해왔으나 기사의 취재권과 편집권은 여전히 기자가 독점함으로써 기자가 시민의 우위에 서는 기자 주도적인 시민 저널리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 시민이 시민의 시각에서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작한 기사는 기사의 취재권과 편집권이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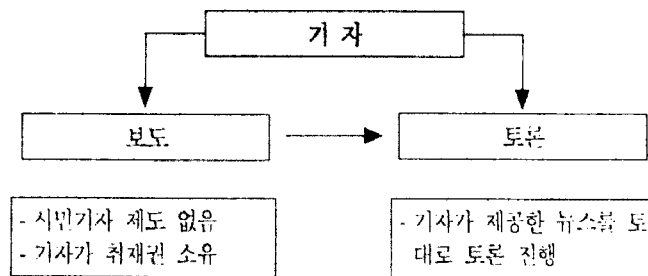
(2) 시민기자 제도 도입 방식에 따른 시민 저널리즘 모델 유형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은 커퍼이어스(2000)의 분류에 따르면 일상적인 보도 과정에 시민 저널리즘을 완전 통합시킨 통합(integrated)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프로젝트별로 시민 저널리즘을 추진하는 특별 프로젝트(special projects) 모델이나 일종의 홍보 혹은 마케팅의 방편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이용하는 퍼블리시티(publicity) 모델과는 달리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인 보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을 3개 모델로 유형화한 어데이(1999)의 분류에 따르면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국 인터넷 신문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 모델은 동반자 모델(Prominent Partnership Model)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언론과 시민 간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권력이양 모델

(Enhanced Empowerment Model)이나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답습하고 있는 최하위 단계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인 정보제공자 모델(Integrated Information Provider Model)과는 달리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 시민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언론을 일반 시민과 동일한 위치에 두면서 지면의 많은 양을 할애해 시민 중심적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반자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커콰이어스의 통합 모델 혹은 어데이의 동반자 모델과 유사한 국내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은 기자와 시민이라는 두 중심축을 기준으로 기사 작성 과정에서 누가 시민 저널리즘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기자·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등 세 가지 모델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① 제1유형: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은 대외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면서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이 관심을 갖는 시민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 없이 전문적인 직업 기자가 모든 보도 과정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민 저널리즘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은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뉴스에 반영하기는 하지만 1차적인 기사 작성은 물론 2차적인 뉴스의 취사선택 과정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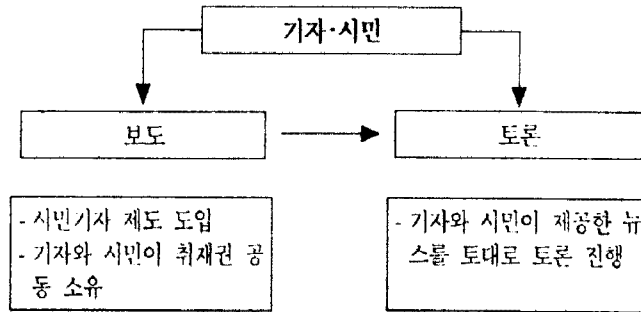
<그림 1>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

모두 전문적인 직업기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취재 및 편집 결정권이 모두 신문을 운영하는 쪽에 귀속돼 있고 토론 과정 역시 전문적인 직업 기자가 제공한 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② 제2유형: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은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문적인 직업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뉴스 생산 과정에 직접 동참케 함으로써 뉴스 보도 즉 의제 설정 과정을 기자와 시민이 공동으로 주도한다는 점에서 제1유형의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과 차별화된다. 즉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면서 기존 언론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뉴스 생산 및 수용 방식을 보이고 있고 의제에 대한 토론 역시 전문적인 직업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작성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1유형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과 차별화된다. 제2유형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은 기자와 시민이 의제 설정 및 토론 과정에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을 수행함에 있어 양자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사 작성 과정에서 전문적인 직업기자와 일반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스의 취사선택 과정 즉 의제를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게이트키퍼 과정은 본사 편집국 소속의 직업기자들이 관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전문적인 직업 기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취재는 기자와 시민이 공동으로 나눠 갖고 있지만 편집권은 여전히 언론을 운영하는 쪽에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시민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제2유형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로는 뉴스 게릴라로 불리는 시민기자들과 제도권 출신의 전문적인 직업기자들이 공동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오마이뉴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이 기사의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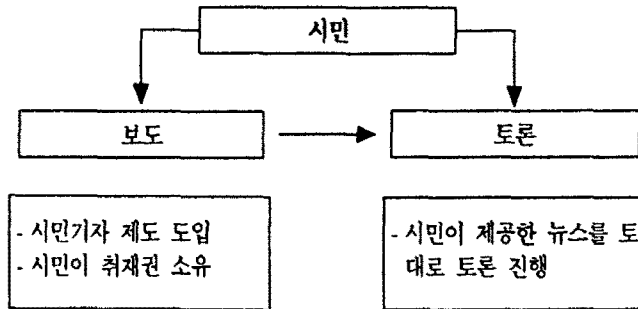
<그림 2>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

주역이 되는 시민 언론을 표방하고 있다. 또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를 부각,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의 입장에 서있는 언론’을 지향하고 있는 <시민의신문> 역시 제2유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경우 제도권 출신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시민의신문>은 비제도권 출신 직업기자들이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제2유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긴 하지만 <오마이뉴스>와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오마이뉴스>가 제도권 출신 직업기자와 시민 기자가 공동으로 뉴스를 제작하는 제2-1 유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라면 <시민의신문>은 비제도권 출신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공동으로 뉴스를 제작하는 제2-2유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문적인 직업 기자와 일반 시민이 뉴스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는 제2유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로는 <오마이뉴스>와 <시민의신문> 외에 <독립신문> <사이버뉴스24> <뉴스타운> <뉴스비전21> <빠라넷> <여래일보>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③ 제3유형: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은 전문적인 직업기자를 두지 않고 일반 시민들만이 기사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은

물론 제1유형 및 제2유형의 시민 저널리즘과도 차별화 된다. 즉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저널리즘은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이 기사 작성을 주도하면서 토론 역시 일반 시민이 제공한 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3>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

이 같은 제3유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로는 이른바 ‘현대사회의 주인인 시민이 언론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개념의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네티피니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네티피니언>은 1999년 9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직업기자 없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오직 시민기자들만이 뉴스를 제작하는 순수 네티즌 언론으로 선보였다. <네티피니언>은 기존 언론이 갖고 있는 편집국이나 그와 관련된 부서가 없으며 단지 한사람의 운영자가 이른바 site-keeper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시민기자들이 올린 기사에 대해서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단 구분 등과 같은 교열 작업 외에는 원고에 대해 일체 손을 대지 않는다는 방침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네티피니언>은 사이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site-keeper 기능만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내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을 기자와 시민이라는 두 중심축을 기준으로 기사 작성 과정에서 누가 시민 저널리즘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기자·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등 세 가지 모델로 유형화한 뒤 시민 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그렇지 않은 인터넷 신문 사이에 시민 저널리즘 구현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라 할지라도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구현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시민 저널리즘 옹호론자들은 일반 시민이 언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 유로 기자들이 시민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를 보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Rosen, 1996b; Blendon, et al., 1998). 또 기자가 일반 시민보다는 권력층과 보다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고 교육을 받은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것(Carey, 1993; Kurtz, 1994; Yankelovich, 1994; Rosen, 1996a & 1996b; Denton & Thorson, 1998), 그리고 기괴하거나 별난 것 혹은 하찮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Rosen, 1992, 1996c) 등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인터넷 신문은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 시민이 직접 뉴스 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시각에서 보도하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즉 뉴스 보도에 일반 시민의 견해와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민 중심적인 보도를 통해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한 인터넷 신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인터넷 신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구현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온라인 시민 저널리즘 신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구현 정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1]에 대한 검증은 통해 시민기자 제도가 과연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하는데 있어 실제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즉 시민기자 제도가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또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도입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두번째 연구 문제는 같은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라 할지라도 시민기자 제도 도입 유형에 따라, 즉 누가 시민 저널리즘을 주도하는가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구현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한 실증 분석은 기자와 시민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시민 저널리즘과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저널리즘 등 각각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다. 또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모델이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모델인지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다.

[연구문제 2] 같은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라 할지라도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선정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위해 제도권 출신 직업기자와 뉴스 게릴라로 불리는 시민기자가 공동으로 뉴스를 작성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비제도권 출신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공동으로 뉴스를 작성하고 있는 <시민의신문>, 시민기자만이 뉴스를 작성하고 있는 <네티피니언>,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 없이 제도권 출신 직업기자들만 뉴스를 만들고 있는 <프레스시안> 등 4개 인터넷 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피니언> 등 3개 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들 신문의 경우 인터넷에서 출발한 종합 일간지 형태의 인터넷 신문으로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면서 각각 서로 다른 유형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을 대표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이다. 또 <프레스시안>의 경우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 없이 제도권 출신의 전문적인 직업기자들만이 뉴스를 만들고 있고 또 이들 직업 기자들이 제공한 뉴스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분석 및 평가 전문 회사인 랭키 닷컴(www.rankey.com)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2003년 3월 기준으로 최근 12주 동안 평가한 한국 인터넷 신문 시장 점유율(시간당 방문자 수 점유율)면에서 인터넷 신문 중 가장 높은 23.5%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의신문>은 인터넷 신문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전체 인터넷 신문 중 20위, <네티피니언>은 54위, <프레스시안>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4개 인터넷 신문에 대한 내용 분석은 인터넷 신문의 특성상 기사가 자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일관적인 수집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켈러(Koehler, 1999)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정 시간의 순간적인 모습을 잡기 위해 매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2003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각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즉 첫 페이지에 게재된 상위 5개 기사를 확인한 뒤 이를 프린터로 인쇄해 분석했다. 2주간의 분석 기간은 인터넷 신문 내용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된 바 있다(Li, 1998; Dibeau & Garrison, 2001; 박선희, 2001; 최영, 2002).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 조사 결과 43.5%가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간대에 수용자들에게 업데이트 된 기사가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첫 페이지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터넷 신문의 경우 기사 목록만으로 기사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인터넷 신문의 홈페이지 즉 첫 페이지 외의 기사는 특정한 목적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이용자가 아니면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상위 5개 기사를 선택한 것은 인터넷 신문 이용자 역시 종이 신문의 읽기 관행 때문에 주요 기사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열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터넷 신문 역시 편집 회의를 거쳐 무엇을 주요 기사로 첫 페이지에 올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인터넷 신문의 톱기사와 서브기사 등 상위 5개 기사가 해당 인터넷 신문의 뉴스보도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오마이뉴스> 등 본 논문이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경우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첫 페이지에 뉴스의 제목 및 관련 사진 등과 함께 박스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기사의 수가 신문에 따라 최소 5개에서 최대 7개 등 다양하지만 5개가 넘는 신문의 경우 상위 5개 기사로 한정해 분석 대상 기사를 각 신문당 첫 페이지에 게재된 상위 5개 기사로 통일했다. 다만 외신 기사는 시민 저널리즘적 요소를 첨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중장기적인 기획 기사가 상위 5개 기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시민 저널리즘의 주요 덕목 중 하나는 중요한 이슈를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조망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인데 이러한 중장기적 차원의 기획기사가 분석 대상에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채리티(1995)가 주장하고 있듯이 시민 저널리즘의 성공 여부는 매일 매일 발생하는 일반 뉴스의 일상적인 보도에 얼마나 다양한 시민 저널리즘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시민 저널리즘 연구는 연구 대상이 주로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치중해 왔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저널리즘의 실천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획기사가나 단편적인 프로젝트보다는 상위 5개 기사를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일상적인 뉴스에 초점을 맞춰 시민

저널리즘적 요소의 일상적인 실천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작적 정의와 분석 유목의 설정 및 측정 방법

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한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각각의 구체적인 분석 유목,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 저널리즘 지수

본 연구에서는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내 인터넷 신문이 제공하고 있는 기사 내용에 대한 시민 저널리즘적인 요소 측정을 위해 전술한 것처럼 기존의 실증 연구(Charity, 1995; Merritt, 1995; Massey, 1998; Lambeth, 1998; Fee, 1999; Reide, 1999; Corrigan, 1999; Coleman, 2000; Selber, 2001; 최영, 2002)에서 사용됐던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핵심 요소들을 참조해 시민 저널리즘의 핵심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범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기사 내용에 있어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으며 얼마나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1항목에서 제5항목까지 시민 중심적 보도와 관련된 5개항의 측정 항목을 구성했다. 둘째, 해당 기사가 사건 중심의 단순한 이벤트식 보도보다는 관련 정보 혹은 배경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깊이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제6항목에서 제10항목까지 이슈 중심적 보도와 관련된 5개항의 측정 항목을 구성했다. 여기서 제10항목의 경우 전술한 기존의 실증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신문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다양한 배경 정보가 반영된 이슈 중심의 심층 보도를 위해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이퍼텍스트 및 하이퍼미디어의 활용 여부를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 추가했다. 다만 내부 기자에 의해 쓰이는 것이 관련 기사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기존 연구의 경우 내부 기자에 의한 기사 작성을 시민 저널리즘 지수 측정을 위한 항목으로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내부 기자가

작성했느냐 외부 필진이 작성했느냐 하는 형식적 요소보다는 기사의 실제적인 내용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측정 항목에서 제외했다. 코딩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 문구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 기사가 일반 시민 혹은 시민 단체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인용하거나 직접 혹은 간접 화법으로 그들의 견해를 인용 보도하고 있는가?
2. 분석 대상 기사가 시민의 참여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의 결과 혹은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가?
3. 분석 대상 기사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 등 공공의 문제에 일반 시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강조하거나 촉구하고 있는가?
4. 분석 대상 기사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단체나 모임에 대한 안내나 참여 방법,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참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5. 분석 대상 기사가 시민의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된 기사 작성을 위해 여론조사나 공공포럼 혹은 포커스그룹을 활용했는가?
6. 분석 대상 기사가 양자택일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가?
7. 분석 대상 기사에 해당 이슈나 쟁점의 절충이 가능한 공통의 기반 혹은 핵심 가치가 내재돼 있거나 이를 언급하고 있는가?
8. 분석 대상 기사가 성공 사례 제시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가?
9. 분석 대상 기사가 해당 이슈에 대해 관련 정보나 배경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분석 대상 기사가 이슈 중심의 심층 보도를 위해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10개 항목을 토대로 해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10점 척도의 시민 저널리

증 지수를 구성했다. 각 측정 항목에 대한 점수는 해당 요소가 나타날 경우 1점, 해당 요소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부여했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 검증

시민 저널리즘 지수 산출을 위한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해 측정 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한 결과 0.66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3) 자료수집 및 코딩

2003년 3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에 걸친 사전 분석을 통해 분석 유목과 코딩 항목을 설정한 후 코딩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코딩은 양적 유목과 함께 질적 유목도 포함시켜 예상치 못했던 특기할 만한 내용들을 별도로 기술하도록 했다. 최종 분석에서는 코딩 지침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진 서울시내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생 2명이 2003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분석 대상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분석 작업을 했다. 양적 변인에 대한 코더간 신뢰도 검증은 약 10%의 기사를 대상으로 스코트(Scott, 1995)가 고안한 신뢰도 지수(index of reliability) 공식을 이용해 코더간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 0.90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

1) 표본의 기술적 통계

[연구문제 1] 과 [연구문제 2] 를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피니언> <프레시안> 등 4개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즉 첫 페이지에서 추출한 280개의 기사 중 중복 게재된 61개의 기사와 29개의 외신 기사

등 90개의 기사를 제외한 총 190개의 기사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190개의 기사 중 <오마이뉴스>가 67개(35.3%), <시민의신문>이 55개(28.9%), <넷파니언>이 32개(16.8%), <프레시안>이 36개(18.9%)였다. 이를 기사의 비중별로 보면 상위 첫번째 기사가 41개(21.6%), 상위 두번째 기사가 36개(18.9%), 상위 세번째 기사가 43개(22.6%), 상위 네번째 기사가 40개(21.1%), 상위 다섯번째 기사가 30개(15.8%)였다.

2) 연구문제 1의 검증결과와 논의

(1) 시민 저널리즘 지수 비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그렇지 않은 인터넷 신문 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첫 페이지에 게재된 상위 5개 기사를 대상으로 t-검증을 실시했다.

<표 2> 시민기자 제도 도입 여부에 따른 시민 저널리즘 지수 비교

신문명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오마이뉴스	67	2.55	2.12	2.323*
프레시안	36	1.58	1.81	

*p<.05

t-검증 결과를 보면 시민 저널리즘 지수 평균은 <오마이뉴스> 기사가 2.55, <프레시안> 기사가 1.5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23$, $df=101$, $F=.277$, $p=.022$). 이는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프레시안> 기사보다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별 시민 저널리즘 요소 비교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의 각 항목별 세부적인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민 저널리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제1항목 즉 일반 시민 혹은 시민 단체를 취재원으로 인용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 2개 신문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제1항목의 경우 <오마이뉴스>가 38건 56.7%, <프레시안>이 18건 50.0%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신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9항목 즉 해당 이슈에 대해 관련 정보나 배경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는 기사의 비율 역시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9항목의 경우 두 신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0항목 즉 심층 보도를 위해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두 신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시민 저널리즘 척도를 이용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와 그렇지 않은 <프레시안> 기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민 저널리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항목 중 제9항목과 제10항목 즉 해당 이슈에 대해 관련 정보 혹은 배경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는 기사의 비율과 심층 보도를 위해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 두 신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표 2>에서 나타난 두 신문의 종합적인 시민 저널리즘 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제9항목과 제10항목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마이뉴스> 역시 시민 저널리즘 지수 평균은 2.55로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마이뉴스>가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를 활

<표 3> 시민기자 제도 도입 여부에 따른 세부 시민 저널리즘 요소 비교

단위: 건수(%)

시민 저널리즘 지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x2
1. 시민 인용	38(56.7)	18(50.0)	n.s.
2. 참여정보	10(14.9)	9(25.0)	n.s.
3. 참여 촉구	12(17.9)	9(25.0)	n.s.
4. 시민 영향력	14(20.9)	8(22.2)	n.s.
5. 여론조사	3(4.5)	0(0)	n.s.
6. 다양한 해결책	10(14.9)	1(2.8)	n.s.
7. 공통 기반/핵심 가치	20(29.9)	5(13.9)	n.s.
8. 해결 가능 시사	9(13.4)	1(2.8)	n.s.
9. 배경 정보 제공	35(52.2)	6(16.7)	12.367**
10. 하이퍼텍스트/미디어	20(29.9)	0(0)	13.336**

**p<.01

용한 심층 보도와 해당 기사에 대한 배경 정보 제공 등의 차원에서 <프레시안>에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오마이뉴스> 역시 여론 조사를 활용한다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슈 중심적 보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2의 검증결과와 논의

(1) 시민 저널리즘 지수 비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피니언> 등 3개 인터넷 신문의 일상적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를 10개 측정 항목으로 구성된 시민 저널리즘 척도를 사용해 분석했다. <표 4>에서 제시된 것처럼 3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보면 <오마이뉴스> 2.55, <시민의신문> 2.47, <네티피니언> 1.59 등으로 세 신문 모두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저널리즘

지수의 최고 점수가 10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지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 내에서 3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지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067, p=.0495$). 이는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어느 두 모델간에는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산분석 결과만으로는 어떤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동질적인지 혹은 이질적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각 모델 상호간 통계적 유의미성을 개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cheffé의 다중 검정치를 이용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오마이뉴스>와 <네티피니언>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7$).

<표 4>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른 시민 저널리즘 지수 비교

신문명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분석					
				집단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오마이뉴스	67	2.55	2.12	집단간	21.771	2	10.886	3.067*	.049
시민의신문	55	2.47	1.67	집단내	535.995	151	3.550		
네티피니언	32	1.59	1.70	합계	557.766	153			

* $p < .05$

이는 <오마이뉴스>와 같은 제2유형의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네티피니언>과 같은 제3유형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구현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컨대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공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기자만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 보다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개별 시민 저널리즘 요소 비교

3개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시민 저널리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항목의 세부 실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표 5> 3개 인터넷 신문의 개별적 세부 시민 저널리즘 요소 비교

단위: 건수(%)

시민 저널리즘 지수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커니언	χ^2
1. 시민 인용	38(56.7)	46(83.6)	13(40.6)	18.053**
2. 참여정보	10(14.9)	16(29.1)	5(15.6)	n.s.
3. 참여 촉구	12(17.9)	10(18.2)	10(31.3)	n.s.
4. 시민 영향력	14(20.9)	15(27.3)	11(34.4)	n.s.
5. 여론조사	3(4.5)	1(1.8)	0(0)	n.s.
6. 다양한 해결책	10(14.9)	8(14.5)	0(0)	n.s.
7. 공통기반/핵심가치	20(29.9)	13(23.6)	3(9.4)	n.s.
8. 해결가능 시사	9(13.4)	4(7.3)	7(21.9)	n.s.
9. 배경정보 제공	35(52.2)	20(36.4)	2(6.3)	19.662**
10. 하이퍼텍스트/미디어	20(29.9)	3(5.5)	0(0)	21.242**

**p<.01

분석 결과 시민 저널리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항목 중 제1항목 즉 일반 시민 혹은 시민 단체를 취재원으로 인용 보도하는 경우가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커니언> 등 3개 신문 모두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 3개 신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5>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제1항목의 경우 <시민의신문>이 46건 83.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38건 56.7%, <네티커니언>이 13건 40.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9항목 즉 해당 이슈에 대해 관련 정보나 배경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는 기사의 경우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커니언> 등 3개 신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9

항목의 경우 <오마이뉴스>가 35건 52.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민의신문>이 20건 36.4%, <네티피니언>이 2건 6.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0항목 즉 심층 보도를 위해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3개 신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표 4>에서 나타난 시민 저널리즘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1항목, 제9항목, 제10항목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신문의 경우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일상적인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각각의 유형을 대표하는 3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지수 평균은 2.32로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저널리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항목의 세부 실천 정도를 보면 제1항목 즉 일반 시민 혹은 시민 단체를 취재원으로 인용 보도하는 사례가 3개 신문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여론 조사를 활용한다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의 제시 혹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슈 중심적 보도는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신문에서의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이 시민 저널리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내 인터넷 신문이 제공하고 있는 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 저널리즘의 실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도입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 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을 유형에 따라 기자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 등 3개 모델로 유형화한 뒤 각각의 시민 저널리즘 모델간에 시민 저널리즘 구현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시민 기자 제도 도입 여부에 따른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 비교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과 도입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 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기사를 대상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평균 시민 저널리즘 지수는 2.55로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프레시안> 기사의 1.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기자 제도 도입 여부가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두 신문간의 통계적 차이는 제9항목과 제10항목 즉 배경 정보 제공과 하이퍼텍스트 및 하이퍼미디어의 활용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오마이뉴스> 역시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혹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성공 사례 제시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슈 중심적 보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 저널리즘 구현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른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 비교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피니언> 등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시민 저널리즘 척도를 사용해 분석했다. 이들 3개 인터넷 신문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제도권 출신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공동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제2-1유형의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

델을 대표하는 신문이다. <시민의신문>은 비제도권 출신 직업기자와 시민 기자가 공동으로 뉴스를 제작하는 제2-2유형의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을 대표하는 신문이다. <네티피니언>은 시민기자들만이 기사를 작성하는 제3유형의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신문이다. 이들 3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마이뉴스>와 <네티피니언> 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라 하더라도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나 시민 저널리즘 유형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공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기자만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3개 인터넷 신문 기사의 평균 시민 저널리즘 지수는 <오마이뉴스> 2.55, <시민의신문> 2.47, <네티피니언> 1.59 등으로 세 신문 모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기자 제도 도입 유형에 따라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신문의 일상적인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는 다소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인터넷 신문이 갖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가능성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최영, 2002). 최영은 로체스터 데모크랫, 샬럿 옵서버, 올란도 센티널 등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시민 저널리즘 신문 3종과 온라인 비시민 저널리즘 신문 1종의 일상적 뉴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토대로 미국의 경우에도 온라인 시민 저널리즘 신문과 온라인 비시민 저널리즘 신문 간에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까지 온라인

시민 저널리즘 신문의 시민 저널리즘 실천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일반 시민 참여, 내부 기자에 의한 기사 작성, 핵심 가치, 이슈 관련 정보, 해결책 제시, 성공 스토리, 여론조사, 공공 포럼, 포커스 그룹 등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시민 저널리즘 지수를 토대로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를 측정한 결과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시민 저널리즘 신문인 로체스터 데모크랫, 샬럿 옵서버, 올란드 센티널 등 3개 인터넷 시민의 저널리즘 지수는 각각 2.47, 2.07, 2.04로 나타나 시민 저널리즘 지수의 최대점이 9점인 것을 고려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2)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 및 논의

인터넷 신문이 갖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1차적으로 의제설정 단계와 2차적으로 의제토론 단계 등 2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1차적으로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뉴스에 적극 반영하는 시민 중심적 보도를 통해 일반 시민의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오마이뉴스>가 그렇지 않은 <프레시안>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이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공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이 시민 기자들만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에 비해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민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보다는 기자·시민 공동 주도형 시민 저널리즘 모델이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 보다 바람직한 모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기사의 취재권은 물론 편집권까지 넘겨줄 경우 오히려 시민 저널리즘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사

의 질적 저하 등 또 다른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되 전문적인 직업기자와 시민기자가 공동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전문적인 직업기자가 최소한의 편집권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단순히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시민 저널리즘이 충분할 만큼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신문의 경우 각기 나름대로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면서 어느 정도 시민의 목소리를 기사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성공 사례 제시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슈 중심 보도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인터넷 신문의 경우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가 나왔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 실천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시민 기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내 인터넷 신문이 표방하고 있는 시민 저널리즘은 대체적으로 시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시민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 혹은 견해를 기사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슈 중심적 보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신문 운영자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 스스로가 시민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시민 저널리즘을 국내 언론에 수용 혹은 적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기자 제도가 시민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이슈 발굴을 위한 시민 생활권 취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기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뉴스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인터넷 신문이 시도하고 있는 시민기자 제도는 잘 활용될 경우 시민 저널리즘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또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비용의 문제다(Meyer 1998; 안병길, 2003). 즉 시민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 포럼 개최나 이슈 여론 조사 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시민 저널리즘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 인터넷 신문이 시도하고 있는 시민기자 제도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시민 저널리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시민 저널리즘 도구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민기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시민 저널리즘이 충분할 만큼 제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 실천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과 접근이 요구된다. 가령 시민 기자들로 하여금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자유롭게 기사를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시민 중심, 이슈 중심의 시민 저널리즘 보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민기자 제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 저널리즘 구현 방법을 모색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시민 저널리즘과 접목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네티피니언> <프레스리안> 등 4개 인터넷 신문의 제한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문의 시민 저널

리즘 실천 가능성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표본을 바탕으로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신문 이용자들의 토론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 신문 운영자나 기자 혹은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기자나 일반 독자들이 시민기자 제도나 시민 저널리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일상적인 뉴스 보도 및 토론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오마이뉴스 기사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5권 2호, 117~155.
- 안병길 (2003). 『시민 속의 언론 공공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태진·강내원 (2001).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인스닷컴', '인터넷한겨레', '오마이뉴스'의 기획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 1호, 306~343.
- 이종수 (2002). 선거 이슈와 이슈 보도: 시민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관훈저널』, 통권 제84호.
- 최 영 (2002). 온라인신문에서의 시민저널리즘 가능성 연구: 일상적 구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 6호, 33~63.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인터넷 이용자 및 인터넷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
- Aday, H. (1999). *Public Journalism and the power of the press: exploring the frame setting effects of the new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lazier, T. & Lemert, J. (2000). Public journalism and changes in content of the Seattle Tim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1(3), 69~80.
- Blendon, R. J., et al. (1998). Did the Media Leave the Voters Uninformed in the 1996 Election? in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Spring 1998, Vol. 3, Issue 2.
- Carey, J. W. (1993). The Mass Media and Democracy: Between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i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7, No 1.
- Charity, A. (1995). *Doing Public Journalism*,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leman, R. (2000). Use of visual communication in public journalism. *Newspaper Research Journal*, 21(4), 17~37.
- Corrigan, D. (1999). *The Public Journalism Movement in America*.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Denton, F. & Thorson, E. (1998). Effects of a Multimedia Public Journalism Project on Political Knowledge and Attitudes. in *Assessing Public Journalism*. Eds. Edmund B Lambeth, Philip E Meyer and Esther Tho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and London.
- Dibeau, W. & Garrison, B. (2001). How six only newspapers use web technolog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2(2), 79~93
- Fee, F. (1999). *Measuring Disconnect: A Case Study of Readers and Journalis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Kochler, W. (1999). An Analysis of Web Pages and Web Site Constancy and Perman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ion Science*, 50, 162~180.
- Kurpius, D. (2000). Public Journalism and Commercial Local Television News: In Search of a Model.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 No. 2.
- Kurtz, H. (1994). When the Press Outclasses the Public. in *Columbia Journalism Review*, May/June 1994, Vol. 33, No. 1.
- Lambeth, E. & Craig, D. (1995). Civic Journalism as Research. *Newspaper Research Journal*. 16, No. 2.

- Lambeth, E. B. (1998). Public Journalism as a Democratic Practice. in *Assessing Public Journalism*. Eds. Edmund B. Lambeth, Philip E. Meyer and Esther Tho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and London.
- Li, Xigen (1998). Web Page Design and Graphic Use of Three US Newspapers. i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2), 353~365.
- Massey, B. (1998). Civic Journalism and Nonelite Sourcing: Making Routine Newswork of Community Connectednes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2), 394~407.
- McMillan, S. J., et al. (1998). Public Journalism. in *Assessing Public Journalism*. Eds. Edmund B Lambeth, Philip E Meyer and Esther Tho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and London.
- Merritt, D. (1995).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Life. in *National Civic Review*, Vol. 84, Issue 3.
- _____ (1997). Public Journalism, Independence and Civic Capital, Three Ideas in Complete Harmony. in *Mixed News: The Public/Civic/Communitarian Journalism Debate*. Jay Black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eyer, P. (1998). If It Works, How Will We Know? in *Assessing Public Journalism*. Eds. Edmund B Lambeth, Philip E Meyer and Esther Thorson,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and London.
- Parisi, P. (1998). Toward a Philosophy of Framing: News Narratives for Public Journalism.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 No. 4.
- Reide, P. (1999). *Public journalism in the newsroom: Constraints on conflict and journalist role conceptions at five award-winning newspapers*.
- Rosen, J. (1992). Discourse. in *Columbia Journalism Review*, November/December, 1992.
- _____ (1994). *Making Things More Public: On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the Media Intellectual*.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 _____ (1996a). Take Back the Campaign. in *Nation*, Feb 19, 1996, Vol.

262, Issue 7.

_____ (1996b). The Media is the Mess. in *Nation*, Feb 5, 1996, Vol. 262, Issue 5.

_____ (1996c). The Propaganda of the Present: Reflections on Civic Identity in the Media Age. in *Tikkun*, January-February 1996, Vol. 11, No. 1.

Selber, M. (2001). *Cycles of change: Locating and evaluating the latest journalism reform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Yankelovich, D. (1994). A Conversation about our Public Priorities. in *National Civic Review*, Fall-Winter 1994, Vol. 83, No. 4.

(최초 투고 2004.06.01., 최종원고 제출 2004.07.08)

A Study on Citizen Reporter Systems and Civic Journalism Practices in Korean Internet Newspapers

Byoung-Cheol Kim

Professor

(Cyber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ng Choi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civic journalism and the contents of Korean Internet newspapers that might reflect the possibilities of this new medium for civic journalism practices. This study examined how far and deep civic journalism practices have extended into Korean Internet newspapers as journalism's new tradi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news articles of Korean Internet newspapers to uncover any differences among civic journalism Internet newspapers with different citizen reporter systems. The composite measure based upon ten elements of civic journalism practices was used as indicator of civic journalism practices.

To obtain systematic data on news offered by Korean Internet newspapers on the World Wide Web, four major Internet newspapers, including Ohmynews, Ngotimes, Nerpinion and Pressian were examined by a content analysis in April and May of 2003.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that many Korean newspapers do not fully exploit the opportunities and advantages offered by the new medium for civic journalism practices in online environments. Both aggregate and individual level of analysis for the civic journalism index reveal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non-civic journalism and civic journalism Internet newspapers using citizen reporter systems. However, overall performances of civic journalism Internet newspapers are not good enough to support the argument that civic journalism is well practiced in Korean Internet newspapers. Nonetheless, it would not

be fair to conclude that Korean Internet newspapers have totally ignored the Internet's potential to increase the civic journalism performance in online environments.

Keywords: Internet newspapers, civic journalism, citizen reporter system